

# SK telecom 폴스택 AI kt 현장 즉시투입 LGU+ 고객경험·보안

## 이통3사 MWC26 출격

SKT 국내 첫 519B 규모 'A.X K1' 실제 추론 성능·비용 효율성 관련

KT '실질적 도구'로서의 AI 제안 운영체제 '에이전틱 패브릭' 핵심

LGU+ '익시오'로 밀착 AI 서비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 주목



SK텔레콤 MWC26 전시관 이미지.



/SKT MWC26 KT부스 조감도.



/KT MWC26 LG유플러스 전시관 조감도.

/LG유플러스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6’은 한국 통신 3사가 더 이상 ‘통신’이라는 구태의연한 껍데기에 머물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번 박람회에서 망 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우고,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인공지능으로 재편한 ‘AI 컴퍼니’로서의 실질적 생존 능력을 검증받는다. 내수 시장의 포화와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이 꺼내 든 카드는 ‘소버린 AI(AI 주권)’와 ‘실용형 에이전트’로 요약된다.

2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MWC 2026에 통신 3사가 모두 출전해 기술을 뽐낸다.

SK텔레콤은 이번 MWC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단순히 모델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AI 데이터센터(D

C)부터 초거대 모델, 서비스까지 수직 계열화한 ‘폴스택 AI’ 경쟁력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국내 최초 519B(5190억 개)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 ‘A.X K1’의 현장 시연이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한 이 모델은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가능케 하는 핵심 지표다. 글로벌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아키텍처와 학습 로그를 가진 모델이 실제 어느 정도의 추론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동시에 SKT는 울산 AI DC 유치와 고성능 GPU 클러스터 ‘해인’ 구축으로 쌓은 하드웨어 운영 노하우를 공개하며, AI를 돌리기 위한 ‘그릇’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엔비디아의 B200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과 추론 중심의 ‘AI 인퍼런스 팩토리’는 AI가 실험실을 넘어 산업 현장의 실질적 인프라로

안착했음을 선포하는 대목이다.

KT는 기술의 거장함보다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질적 도구’로서의 AI를 제안한다. ‘평화문광장’을 테마로 꾸민 전시관은 한국적 정체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AI를 업무에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용주의를 담고 있다.

핵심은 엔터프라이즈 AI 운영체제인 ‘에이전틱 패브릭(Agentic Fabric)’이다. 이는 기업이 복잡한 코딩 없이도 산업별 표준 템플릿을 활용해 자신들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결제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틱 AIC’와 비전 AI 기술은 KT가 타깃으로 삼는 AX(인공지능 전환)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상생 협력 부스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의 연대를 강조한 점 역시, 혼자 가

닌 생태계 전체를 끌고 나가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성능 경쟁이 아닌 ‘고객 경험’과 ‘보안’이라는 감성적·윤리적 측면을 파고든다. 흥범식 CEO가 LG그룹 경영진 중 최초로 MWC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것은 그만큼 이번 전시에 역할을 걸었다는 방증이다.

홍 CEO가 강조할 ‘사람 중심 AI(Humanizing Every Connection)’는 AI가 기술적 성취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연결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는지에 집중한다. 온디바이스 AI 폴 에이전트 ‘익시오(IXI-O)’는 보이스피싱 탐지와 실시간 통화 요약 등 사용자에게 가장 밀착된 통신 서비스를 AI로 혁신한 사례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주관의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다. 자체 모델 ‘익시젠(IXI-GEN)’의 취약점을 글로벌 전

문가들에게 공개적으로 검증받겠다는 것은, 생성형 AI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안전한 AI’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이다. 보안 솔루션 ‘익시가디언 2.0’을 필두로 한 신뢰 마케팅은 기술 격차를 넘어선 사용자 안심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의도다.

MWC26에서 확인된 통신 3사의 전략은 각기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다. 글로벌 빅테크의 거센 파고 속에서 한국만의 ‘AI 주권’을 지켜내는 동시에,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를 수익 모델로 연결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 통신사들이 덤 파이프(Dump Pipe, 단순 망 제공자)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 AI 지형을 바꾸는 ‘인텔리전스 사업자’로 거듭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모티프테크놀로지스, ‘국가대표 AI’ 마지막 정예팀 합류

트릴리온랩스와 초접전 끝 판정승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험 증명 제한된 환경서 세계적 수준 성능 보여



모티프테크는 트릴리온랩스와 초접전 끝에 판정승을 거뒀다. 모티프테크는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와 비디오 영역까지 아우르는 독자 모델 개발 경험을 증명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와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설계로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낸 점이 주요했다.

함께 경쟁했던 트릴리온랩스 역시

단,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일회계법인, 국가유산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12.7B 모델 등으로 기술력을 입증했으나 근소한 점수 차로 고배를 마셨다.

평가위원들은 “(모티프테크는) 다수의 핵심 모듈을 자체적으로 제안하고 구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및 비디오 영역에서도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온 점에서 기술적 내재화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정부는 ‘프롬프트 크래치(바닥부터 개발)’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의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독자성을 ‘초기 데이터 로그 보유 및 자체 문제 해결 능력’으로 규정했

다. 즉, 모델 개발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고 오류 발생 시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술적 뿌리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7월 말 개발 완료 시점에 맞춰 산학연 전문가들과 협의해 더 세분화된 독자성 기준을 확정해 하반기 평가에 적용할 방침이다.

모티프테크 정예팀은 앞으로 6개월간 300B(3000억 개) 파라미터급 추론형 거대언어모델(LLM)을 시작으로 시각언어모델(VLM), 물리적 행동 지시가 가능한 시각언어행동모델(VLA)까지 순차적으로 고도화한다. 특히 모델 가중치와 코드, 연산 최적화 라이브러리 등 전 영

역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을 노린다.

정부는 이들에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B200 768장과 1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구매 비용 등 기존 팀과 동등한 인프라를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는 오는 8월 초에 열릴 2차 단계평가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존 3개 팀과 이번엔 합류한 모티프테크는 각각 6개월의 개발 기간을 보장받은 뒤, 실제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I) 확장성을 두고 격돌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실장(사진)은 “독파모 사업을 통해 개발된 독자 모델들이 공공·산업 분야의 AI에 원활히 적용되고 디지털 소외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와 GPU 지원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 KT-삼성전자,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검증

6G 시대 대비 핵심 기술 검증 일환 7GHz 대역서 진행... 집적도 크게 향상

KT가 삼성전자와 함께 7GHz 대역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기술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무선 시스템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며, 6G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술 검증의 일환이다.

초고집적 다중 안테나 기술은 다수의 안테나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해 신호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처리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검증은 6G 핵심 후보 주

파수 중 하나인 7GHz 대역에서 진행했다. 검증 결과, 기존 5G 장비 대비 안테나 집적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5G 기지국 장비인 64TRx와 비교해 집적도가 약 4배 높아 동일 공간에서 더 많은 안테나와 빔 구현이 가능했다. 초고주파 대역에서 성능 확보가 어렵던 기존 한계를 개선한 사례로 평가된다.

고용량 전송 시험에서는 다운로드 속도 3.0Gbps를 기록했다. 기지국에서 단말로 8개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6G 서비스에 요구되는 고속 데이터 전송 가능성을 확인했다. 해

당 시험은 키사이트 통신솔루션 그룹의 시험용 6G 단말기를 활용해 진행됐다.

KT와 삼성전자는 이번 기술이 XR, 메타버스, 홀로그램 서비스와 대규모 데이터 기반 AI 애플리케이션 등 6G 환경에서 요구되는 고대역폭·저지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향후 상향링크 커버리지 개선, 신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무선 시스템 고도화, AI-RAN과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 6G 표준화 협력 등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키사이트통신솔루션 그룹은 신규 주파수 활용과 시험 환경 제공을 통해 초기 6G 기술 검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APEC 교통지원 공로 인정

외교부 장관 표창·경북도지사 감사패

카카오모빌리티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기간 교통 분야 지원을 수행한 공로로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송도에서 열린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3)와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분회의 기간에 맞춰 온·오프라인 모빌리티 인프라를 지원했다.

주요 행사 구간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해 각국 대표단과 관계자의 이동을 지원했고, 카카오버스 앱을 통해 26개 노선의 임시 우회 노선 정보를 제공해 시민 불편을 줄였다. 행사장 내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노선과 탑승 정보를 앱으로 안내해 방문객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로로 외교부 장관 표창과 함께 경북도지사 감사패도 수상했다.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교통 운영을 지원한 사례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국가 단위 행사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서현 기자